

# 광주도시공사,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 구워냈다

###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서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활동 임직원·영구임대 입주민 30명 동참...아동 복지시설 전달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보호계층과 함께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광주도시공사는 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광주사회복지회관)에서 공사 임직원 및 신정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밀가루 반죽부터 굽기, 포장 단계까지 제빵의 전 과정을 직접 동참했다. 정성껏 완성된 빵은 관내 아동양육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로 당일 즉시 배송했다. 이번 활동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보호계층에 대한 기존의 시혜적인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직접 이웃을 돕는 나눔의 주체로 역할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마중물 삼아 임대주택 입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창의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회공헌 활동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임주민 여러분이 손수 빚어낸 빵이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보호계층이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주민 참여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는 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공사 임직원 및 신정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신문윤리강령 준수...언론인이 지켜야 할 덕목"

###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강령교육

광남일보가 9일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열고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흥중동 광남일보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신문윤리강령 교육에는 이승배 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취재·편집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부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을 통해 '취재원 보호 기사 취재 윤리 준수', '현장 공정정보 준수' 등을 강조했다. 특히 기사의 가치를 돋보일 수 있는 편집자의 독창적 제목 뽑기와 취재기자의 의견 존중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어진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작으로 부당광고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9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수주제에 원칙 준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무료 광고 지원 등에 대해 강조했다. 판매윤리강령을 통해서도 구독확장시 향후 접대를 금지하고, 구독자 관리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도 구독자 관리 방법과 무단 투급 금지 등을 언급했다. 이승배 사장은 "엄격한 신문윤리강령 준수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면

서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언론인으로서도덕적 사명감을 준수해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이병귀 담양경찰서장 취임 "어르신·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

이병귀 총경(사진)이 8일 제1대 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이병귀 신임 서장이 경찰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경찰서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병귀 서장은 취임사에서 "담양은 호남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외부인의 유입이 많다.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르신 비율이 높아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겠다"면서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과 외국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 출신인 이병귀 서장은 경찰(경찰대학교 8기)에 입문한 뒤 장흥경찰서장, 경찰대학 교무과장, 서울 구로경찰서장, 서울청 사이버사과과장, 광주청 형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담양=이시우 기자 lss270@gwangnam.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남지역분부는 최근 곡성군 고달면 일원에서 농협 전남본부와 함께 블루베리 수확 일손돕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 농협노조 전남본부, 곡성서 블루베리 수확 돕기 노조·임직원 60여명 참여...영농폐기물 수거활동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남지역분부는 최근 곡성군 고달면 일원에서 농협 전남본부와 함께 블루베리 수확 일손돕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노동조합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남지역본부 노조 분회장과 조합원, 농협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농가를 찾아 블루베리 수확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수확 작업에 나섰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블루베리를 수확하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탬으로써, 농장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도 함께 수거해 농촌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탬했다. 차상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농촌 현장에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 준 분회장님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 "자연 속 여유로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 졌어요"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 '특별한 날들이' 운영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순)은 최근 청계면 '한글농장'에서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기억놀이터 및 기억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서로 소통하고, 일상 속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르신들은 동물 먹이주기 체험과 맨발 걷기 등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소근육 자극과 인지기능 향상을 돕기 위한

'나만의 토분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성취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병순 관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삶의 작은 기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억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제공=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과 활력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탁아사업으로 운영되는 '기억놀이터'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프

로그램 및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

### 위탁부모·아동 등 100여명 참석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청 무등홀에서 '2026년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행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온 위탁부모와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가정위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아동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위탁부모·아동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가정위탁 활성화와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위탁부모와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위탁부모 소감 발표를 통해 가정위탁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청 무등홀에서 '2026년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매년 5월 22일)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위탁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사망, 이혼,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 제도다. 김은영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위탁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수상'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해안관광과 생활체육을 융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입증했다. 9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생활체육학과는 최근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한 '2026 여성세계섬박람회 연계 해양관광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재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나주=조희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장성군 청년 농업인, 日 '스마트 농업' 벤치마킹 15명 후쿠오카 방문...영농기술 경험·정보 교환

장성군이 지역 농가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 '스마트 농업' 현장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청년 스마트팜대학원 교육생 15명이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연수에서 교육생들은 농업박람회(J-ARGI) 참관에 이어 △일본농협(JA) 직판점 △사가 토미타 농협 △'푸의 딸기 농장' △구마모토 농업연수센



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군청년 스마트팜 대학원에서 습득한 교육 내용을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점검하고, 최신 농업기술 동향도 파악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